

바뀌다 vs 변하다 vs 달라지다

다른 것으로 바뀌다·교체되다 · (성질이) 변하다 · 전과 다르게 되다

셋 다 ‘바뀌다, 변하다’로 옮길 수 있습니다. 바뀌다 는 A가 B로 교체되는 것이고, 변하다 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이며, 달라지다 는 이전과 비교해 다르게 보이거나 달라진 것입니다.

■ 한눈에 비교

단어	핵심 의미	누앙스	자주 쓰는 형태
바뀌다	바뀌다, 교체되다, 뒤바뀌다	하나가 다른 것으로 교체됨: 시간, 번호, 신호, 뒤바뀜. 바꾸다의 피동형.	N이/가 바뀌다 N(으)로 바뀌다 / 신호가 바뀌다
변하다	변하다, 달라지다	성질이나 품질이 서서히 변함: 감정, 맛, 시간이 흐른 뒤의 장소.	N이/가 변하다 N(으)로 변하다 / 마음이 변하다
달라지다	전과 다르게 되다	이전과의 대비에 초점: 외모, 생활, 태도.	N이/가 달라지다 많이 달라지다 / 전과 달라지다

■ 차이점

- 바뀌다 = A가 B로 교체됨.** 일정, 비밀번호, 신호등, 담당자: 시간이 3시로 바뀌었어요 ○ / 시간이 3시로 변했어요 ×. 뒤바뀌는 것에도 씁니다: 가방이 바뀌었어요 (가방이 바뀌었어요).
- 변하다 = 사물 자체의 성질이 변함.** 마음이 변했어요 (마음이 변했어요), 맛이 변했어요 (맛이 변했어요), 동네가 안 변했어요. 안에서부터 성질이 변하는 것을 나타내며,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달라지다 = 이전과 비교해 다름.** 변화를 알아챘을 때: 많이 달라졌네요! (많이 달라졌네요!) ○. 많이 변했네요 도 쓸 수 있지만 성격이 변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, 많이 바뀌었네요 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덜 자연스럽습니다.
- 세 단어 모두 자동사입니다.** 셋 다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. ‘내가 번호를 바꿨다’는 번호를 바꿨어요 ○ / 번호를 변했어요 × / 번호를 바뀌었어요 ×. 무언가를 바꾸는 타동사는 바꾸다입니다.

문장	바뀌다	변하다	달라지다
비밀번호가 ____ 로그인 안 돼요.	◎	×	△
사람 마음은 쉽게 ____.	○	◎	○
오랜만에 만났는데 너 정말 많이 ____!	○	○	◎
신호가 초록불로 ____ 길을 건너세요.	◎	×	×
날씨가 추워지면 나뭇잎 색이 빨갛게 ____.	△	◎	△

◎ 자연스러움 ○ 가능 △ 어색함 × 틀림

■ 한 걸음 더

달라지다는 다르다 + -아/어지다 (되다)입니다. 바뀐 지 얼마나 되었는지 말할 때는 -(으)ㄴ 지를 쓰고, 새로운 상태를 말할 때는 다음을 씁니다: -(으)로: 초록불로 바뀌다.

■ 연습 문제

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으세요: 바뀌다, 변하다, 달라지다

- 식당에서 나올 때 다른 사람 신발하고 제 신발이 ____.

정답 바뀌었어요 — 두 물건이 뒤바뀜 → 바뀌다.

- 냉장고에 넣는 걸 잊어서 우유가 ____ 냄새가 이상해요.

정답 변했어요 — 음식이 상함 → 변하다.

- 신호등 불이 빨간불로 ____ 멈추세요.

정답 바뀌면 — 신호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뀜 → 바뀌다.

- 영원히 ____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?

정답 변하지 — 본질이 변하지 않음 (변하지 않는 사랑) → 변하다.

- 운동을 시작한 후에 몸이 전과 많이 ____.

정답 달라졌어요 — 이전과 비교해 다르게 됨 (전과) → 달라지다.

■ 예문

- 다음 달부터 버스 노선이 바뀌어요.
- 가방이 다른 사람 가방하고 바뀌었어요.
- 10년 동안 이 동네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.
- 우유를 밖에 두면 맛이 변해요.
- 한국에 온 후에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.
- 머리를 자르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.

■ 자주 하는 실수

× 회의 시간이 3시로 변했어요.

○ 회의 시간이 3시로 바뀌었어요.

하나가 다른 것으로 교체될 때 (시간, 일정, 비밀번호)는 바뀌다를 씁니다.

× 공항에서 제 가방하고 다른 사람 가방이 변했어요.

○ 공항에서 제 가방하고 다른 사람 가방이 바뀌었어요.

두 물건이 뒤바뀌는 것은 바뀌다입니다. 변하다는 사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입니다.

× 휴대폰 번호를 변했어요.

○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.

변하다와 바뀌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습니다. 내가 바꾼 경우에는 타동사 바꾸다를 쓰세요.